

## 미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다중병렬 매개효과\*

전혜영\*\*

### 초 록

본 연구는 미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와 자녀,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 7차 자료에 응답한 성인 미혼 자녀를 둔 어머니 패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다중병렬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스트레스와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과의 관계, 우울과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요인이며, 다중병렬 매개효과 검증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혼 성인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각각 정적인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분석에서 아쉬웠던 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미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 스트레스, 우울, 다중병렬 매개효과

\* 본 연구는 2019년 여성가족패널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한 것임

\*\*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bestjhy89@gmail.com)

## I. 서론

인간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스트레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만(Barrett, 2017)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과도한 긴장과 잠을 잊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며 때론 우울감이 들게끔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존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로 이어지게 된다(Harley Thearpy, 2015). 따라서 우울을 일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정신건강 문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이, 2009).

한 개인이 놓인 상황과 역할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이에 매개하는 요인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40대 이상인 중년여성의 경우 호르몬과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겪고 있는데 이때 사회적으로 본인의 역할과 더불어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는 걱정거리임과 동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최근 시대가 변함에 따라 20대에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20대에 성인기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진입기’라는 새로운 발달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성인진입기의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이 성인진입기를 벗어나야 하는 시기 이후에도 자녀가 의존하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이 걱정일 수 있다. 반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경우에도 자녀들이 앞으로 잘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걱정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자녀 걱정을 당사자와 직접 대화로 풀 수 있지만,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전가하지 않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인 남편과 대화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간의 대화가 어렵고 갈등을 주로 겪게 되는 경우 걱정을 털어내는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하게 되는 상황도 만들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은 어머니의 과거 우울 증상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가족 응집력,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지지 등의 가족요인으로 보고 있다(이윤화, 김동기, 최은화, 2016; Burt et al., 2005; Beardslee, Gladstone, & Diehl, 2014; Hassert & Kurpius, 2011; Schwartzberg & Dytell, 1996; Turner, 2006; Zeedyk & Blacher, 2017).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어머니의 우울은 대개 영유아, 청소년,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도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이에 더해 비교적 연구가 부족한 미혼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요인으로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로 두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혼 성인 자녀의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란 개인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며(Lazarus, 1993), 우울이란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 될 수 있다(위키백과, 2019). 이 두 증상은 개인에게 나타나고, 개인의 에너지와 기분에 영향을 미치며, 수면과 식욕 패턴을 방해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증상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Harley Therapy(2015)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는 일상 사건의 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우울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명백한 사건의 시발점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지만 우울은 갑자기 심리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울은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스트레스는 현재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우울은 해결되지 않은 지난 과거와 연결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해소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나 우울증은 치료되지 않으면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이 최고치를 이르며 충돌하게 되고, 우울은 피로감을 유발한다.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격려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울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회적 낙인이다. 스트레스는 매우 높으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나 우울은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낮은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괜찮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우울은 최악

하게 만들 수 있다.

앞서 스트레스는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결되지 않으면 내부감각 수용계와 통제네트워크를 부식시키고 위축증을 일으킨다(Barrett, 2017). 또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행동과 낮은 의사결정력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어져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지속하면 우울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 2.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어머니의 우울은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Gjesfield et al., 2010), 그 이유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 대상은 크게 산후 우울증, 영유아를 둔 어머니,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등 네 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공통으로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우울감에는 크게 어머니의 개인 요인과 현재 함께하는 가족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개인 요인이란 어머니가 자라온 환경과 신체 및 심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 또 다른 개인력과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 현재의 우울 증상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Burt et al., 2005; Beardslee et al., 2014), 개인력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족력도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Beardslee et al., 2014). 또한, 어머니의 신체적 요인으로 호르몬 변화와 자연적인 세포 변화로 인해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민은실, 2017; 이홍자, 김춘미, 이도현, 2016).

다음으로,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먼저, 전체 가족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 응집력 및 지지가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윤화 외, 2016). 반면, 가족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 내의 역할의 무의미함은 우울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다(Schwartzberg & Dytell, 1996).

두 번째 가족 요인은 자녀 요인으로, 자녀 문제가 있는 경우 우울감에 매개 역할을 하며, 자녀의 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우울감이 들 수 있다. 특히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비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스트레스의 결과로 우울증 위험이 크다. 이것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우울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되

었다(Zeedyk & Blacher, 2017). 성인 장애를 둔 경우 노후 준비와 걱정이 겹쳐 무기력감을 가져오지만 이 때, 비장애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김고은, 2011).

세 번째 가족 요인은 남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출산 이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우울로 이어진다(Hassert & Kurpius, 2011). 또한, 결혼생활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와 역할분담이 잘되지 않는 경우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ardslee et al., 2014; Schwartzberg & Dytell, 1996) 마지막 가족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스트레스 또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Hassert & Kurpius, 2011; Turner, 2006), 이는 종단 연구를 통한 일관된 결과로 확신을 주었다(Gjesfield et al., 2010). 미혼모, 이혼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등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우울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3.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자녀와 남편, 우울 간의 관계

#### 1)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미정, 최은실, 2013). 만성 스트레스는 일상 스트레스에서 겪는 스트레스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김진이, 2009), 중년여성의 우울은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피로감, 식욕부진과 같은 신체 증상과 역할 상실의 심리적인 증상도 겪게 만든다(이삼순, 최원희, 2007).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최옥주, 2016) 악순환이 가정 내에 계속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중년여성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 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김은숙과 정은정(2019)은 중년의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구조적인 관계 분석을 통해 밝혀내어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권은주 외(2014)도 중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우울 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일상 스트레스 중 건강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송은미, 이승연, 2015).

하지만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우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울 증상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보호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 지지인데, 중년여성의 생활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이홍자, 김춘미, 이도현, 2016). 따라서 주변의 지지가 중년여성에게서 특히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조남희, 성춘희,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보았다.

## 2)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 중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 가정에서 헌신하는 역할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성준모, 2010).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이 무너질 수 있는데, 중년여성이 겪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감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윤정순, 이미현, 이유미, 2017), 더 나아가 자녀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희정, 2019). 그리고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사례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비장애 성인 자녀와 달리 생애 전반에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성인 장애자녀의 불안/우울, 위축/우울, 규칙위반에 영향을 준다(이근용, 이은정, 2016). 이처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년 어머니의 스트레스도 성인자녀에게 적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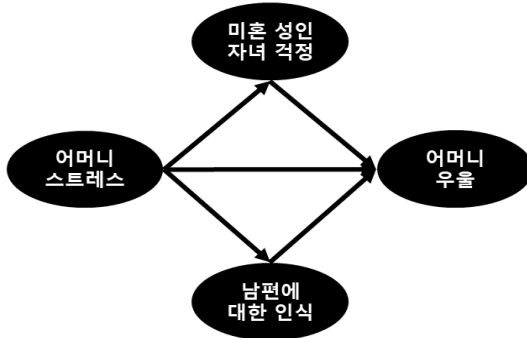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인식 또는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양육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것은 부부가 모두 같은 결과를 보인다(이인정, 김미영, 2014). 또한, 중년여성이 느끼는 가족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데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으로 부적인 영향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김두길, 유영달, 2015). 이렇듯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녀와 남편을 모두 포함시켜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자녀와 남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경로를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가족구성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과 같은 가족관계도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년여성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 감소와 더불어 심리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우울로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성준모, 2010).

성준모(2010)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경우 가족관계의 만족이 우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인 관계 만족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으며, 시간에 따라 우울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여봉(2019)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여성과 성인자녀 간의 경제적인 교환관계를 우울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하는 관계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보다 서로 경제적인 자원을 주고받는 경우 우울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이여봉, 2019). 또한, 남편의 경우 성인 자녀와 달리 반려자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과 인식이 중년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 우울이 낮고, 서로의 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다(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2018).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2018). 또한, 맞벌이 여성의 경우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 직장가정 간의 전이가 긍정적으로 되며,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였다(김현동, 이상우, 201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가 가족 구성원에게 작용하는 부정적인 영향,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것이었다. 미성년 자녀에 비해 성인 자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덜 받지만 미혼인 경우,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연구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Ⅲ.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성가족패널 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여성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종단면 자료이다. 여성가족 패널 대상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들을 표본으로 하며, 여성의 일과 일상, 가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의 생애 주기를 볼 수 있는 패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 자료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에 응답한 기혼 여성 중 미혼인 성인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변수로 설정한 자녀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일상 스트레스, 우울에 모두 응답한 3,06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lt;표 1&gt; 분석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 (N=3,066)

변수	빈도	퍼센트(%)
아내 연령 (n=3,066)	40대 이하	807
	50대	1574
	60대	566
	70대	119
남편 연령 (n=3054)	40대 이하	350
	50대	1598
	60대	826
	70대	262
	80대	18
아내 최종학력 (n=3066)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5
	중학교 졸업	390
	고등학교 졸업	1550
	대학(교) 졸업	730
	석사 이상	41
남편 최종학력 (n=3054)	초등학교 졸업 이하	246
	중학교 졸업	338
	고등학교 졸업	1315
	대학(교) 졸업	1042
	석사 이상	113
자녀 대화 1순위 (n=1688)	자녀의 취업이나 진로	739
	자녀의 직장생활	620
	자녀의 이성친구나 결혼계획	329
자녀 갈등 1순위 (n=2783)	의견 충돌이 거의 없음	2470
	생활습관 문제(귀가시간 등)	214
	취업/진로 문제	99

## 2. 분석 변수

### 1) 독립변수: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관련 초기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된 8개 문항으로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6번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푼다’를 제외하고 역코딩을 하였다. 또한,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해 1번, 6번, 7번, 8번 문항의 표준화계수가 .40이하로 구조적 관계를 저해하

는 문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최종 문항은 총 4개로,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밌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로 최종 문항의 신뢰도는 .735로 나타났다.

## 2) 매개변수1: 남편에 대한 인식

남편에 대한 인식 문항은 총 4개로 4점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남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다. 문항은 ‘나는 남편과 평소 대화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로 문항의 신뢰도는 .803으로 나타났다.

## 3) 매개변수2: 자녀에 대한 걱정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 관련 초기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된 7개 문항으로 높을수록 걱정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전 모형 적합도 분석을 통해 3번 ‘이성친구나 결혼문제로 고민한다’는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40 이하로 구조적 관계를 저해하는 문항이라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문항은 총 6개로 ‘자녀들의 취업과 진로문제’, ‘자녀의 학교나 진학문제’, ‘자녀의 건강문제’,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적 문제’, ‘자녀의 생활습관 문제’, ‘자녀의 교육비 문제’로 문항의 신뢰도는 .817로 나타났다.

## 4) 종속변수: 우울 관련 척도

종속변수인 우울 관련 척도의 초기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된 10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통일하기 위해 역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5번과 8번 문항이 .40 이하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8문항으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두려움을 느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이며 최종 문항의 신뢰도

는 .887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다중병렬 매개모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남편에 대한 인식과 성인 미혼 자녀에 대한 걱정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plus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적합도, 구조적 관계와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중병렬 매개모형은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이고, 매개변수 간에 서로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개모형이다. 이때 모든 매개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형권, 2018). 다중병렬 매개모형의 장점은 매개변수별로 따로 단순 매개분석을 하는 것보다 동일 모형에 통합하여 동시에 분석하면 간접효과검정의 검정력이 증가하고 다른 매개변수를 통한 특정 간접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Hayes, 2013). 매개변수가 2개인 경우의 M 회귀식과 Y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M_i = i_{M_i} + a_i X + e_{M_i}$$

$$Y = i_Y + c' X + \sum_{i=1}^2 b_i M_i + e_Y$$

이형권(2018)에 따르면, 위의 회귀식에서  $a_i$ 는 X가  $M_i$ 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이며 직접효과인  $c'$ 는 2개의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치이다. 그리고  $b_i$ 는 매개변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매개변수와 X를 통제한 상태에서  $M_i$ 가 Y에 미치는 영향의 편회귀계수이다. X가 특정 매개변수  $M_i$ 를 통해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정 간접효과는  $a_i b_i$ 로 계산된다.  $a_i b_i$ 는 단순매개분석과 동일하게 해석하지만, 다중 매개분석이기에 모형 내의 다른 모든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라는 단서가 추가된다. 그리고 총 간접효과는 특정 간접효과의 합계로 볼 수 있다. 총 간접효과는  $\sum_{i=1}^2 a_i b_i$ 로 계산할 수 있다. 단순매개분석과 같게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모든 간접효과의 합계로 계산할 수 있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c = c' + \sum_{i=1}^2 a_i b_i$$

## IV. 연구 결과

### 1.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스트레스, 미혼 성인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혼 성인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r=.009$ ).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변수는  $.118(p<.001)$ 에서  $.290(p<.001)$  사이로 관측변수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관측변수의 평균과 다변량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는  $2.53(sd=.32)$ , 미혼 성인 자녀 걱정은  $2.19(sd=.57)$ , 남편에 대한 인식은  $2.16(sd=.46)$ , 우울은  $1.52(sd=.56)$ 였다. 왜도는  $-.03$ 에서  $.85$  사이로 절대값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39$ 에서  $2.09$  사이로 절대값 7을 넘지 않아(Curran, Stephen, & Finch, 1996)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N=3066)

	1	2	3	4
스트레스	1			
미혼 성인자녀 걱정	.118***	1		
남편에 대한 인식	.171***	.009	1	
우울	.290***	.121***	.206***	1
평균	2.13	12.19	2.16	1.52
표준편차	.32	.57	.46	.56
왜도	-.03	.32	.61	.85
첨도	-.25	.50	2.09	-.39

\*\*\* $p<.001$

### 2.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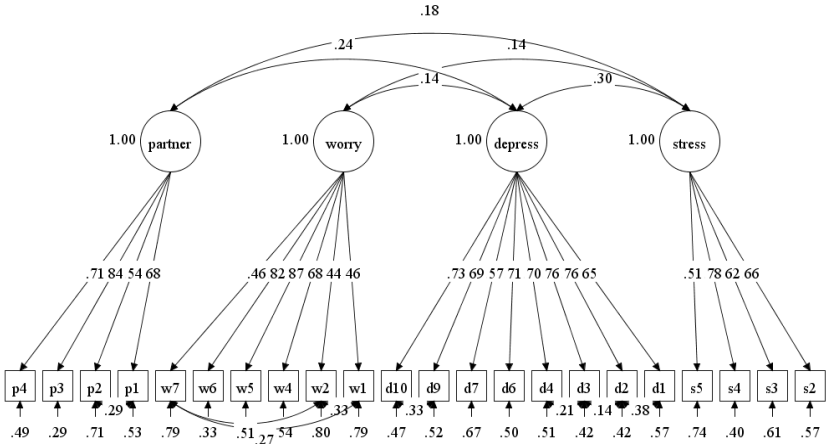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인 스트레스,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과 우울에 대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모수추정법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초기 측정모형 검증 결과 모형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지수(M.I.)에 따라 w1과 w2는 263.833, w1과 w7은 163.08, w2와 w7은 765.386, p1과 p2는 176.653, d9와 d10은 418.347, d1과 d2는 411.876, d3과 d4는 118.753, d2와 d3은 54.395로 나타나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s1, s6, s7, s8, d5, d8, w3은 표준화계수 경로가 .40이하로 확인되어 삭제 하였다.

수정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절대적합도 지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 적합도 지수인 CFI, TLI가 각각 .957, .96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RMR은 .032, RMSEA 값은 .038로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준화계수 경로를 확인한 결과 남편에 대한 인식과 미혼 성인 자녀 걱정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 변수와 남편에 대한 인식 자녀 변수 간에 영향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변수 제거나 2차적 수정절차 없이 최종 수정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확정하였다. 측정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측정모형과 수정모형 (N=3,066)

모형	$\chi^2$	df	$\chi^2/df$	p	CFI	TLI	SRMR	RMSEA
초기모형	3233.10	203	15.93	.000	.885	.869	.045	.070 (.068-.072)
수정모형	1054.56	195	5.41	.000	.957	.961	.032	.038 (.036-.040)
기준 값			<5.0	.05<	.90<	.90<	<.05	<.08



※partner: 남편에 대한 인식, worry: 미혼 성인 자녀 걱정, depress: 우울, stress:스트레스

[그림 2] 수정모형 표준화계수 경로

### 3. 다중병렬 매개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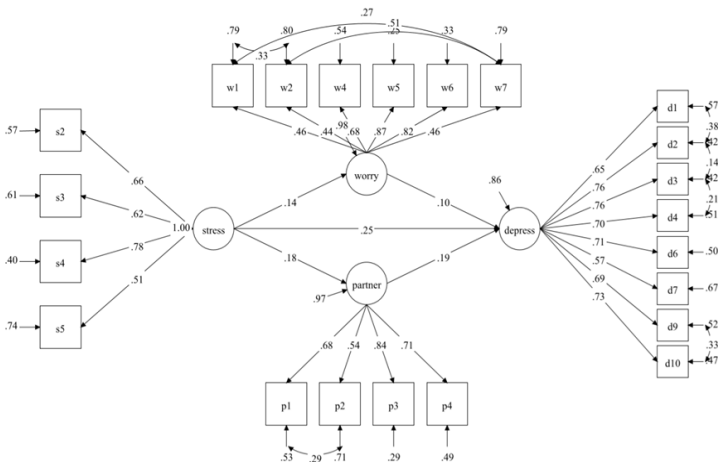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의 다중병렬 매개모형 분석을 하였다. 잠재변수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C.R. 값을 확인한 결과 4.217( $p < .001$ )에서 9.367( $p < .001$ ) 사이로 2.58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는 미혼 성인 자녀 걱정 $(\beta = .141)$ , 남편에 대한 인식에 $(\beta = .176)$ , 우울에 $(\beta = .254)$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 성인 자녀는 어머니의 우울에 $(\beta = .098)$ , 남편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우울에 $(\beta = .193)$ 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간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은 <표 4>와 같으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3]과 같다.

<표 4> 스트레스,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 우울 간 경로계수 (N=3,066)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beta$
	B	S.E.	C.R.	
스트레스 → 성인 미혼 자녀 걱정	.144	.025	5.867***	.141
스트레스 → 남편에 대한 인식	.175	.027	6.555***	.176
성인 미혼 자녀 걱정 → 우울	.097	.023	4.217***	.098
남편에 대한 인식 → 우울	.196	.026	7.451***	.193
스트레스 → 우울	.256	.027	9.367***	.254

\*\*\* $p < .001$



※stress: 스트레스, worry: 성인 미혼 자녀 걱정, partner: 남편에 대한 인식, depress: 우울

[그림 3] 수정 모형의 다중병렬 매개모형

마지막으로 다중병렬 매개모형 수정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의미하는 간접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100,000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미혼 성인 자녀의 걱정을 매개로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남편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성인 미혼 자녀 걱정을 통한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상한: .005, 하한: .026)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도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상한: .020, 하한: .054)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혼 성인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 스트레스는 미혼 성인 자녀 걱정을 부분매개로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에 대한 인식도 부분매개로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남편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미혼 성인 자녀 걱정, 남편에 대한 인식의 간접효과 분석 (N=3,066)

경로	직접효과( $\beta$ )	간접효과( $\beta$ )	총 효과( $\beta$ )	하한	상한
스트레스→ 미혼 성인 자녀 걱정→우울	.254***	.014***	.268***	.005	.026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인식→우울	.254***	.034***	.288***	.020	.054

\*\*\*p<.001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배우자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어머니의 우울을 가족 환경에서 보호요인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는 다른 매개변인들 보다 더 우울감에 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Beardslee et al., 2014; Eshbaugh, 2010; Schwartzberg & Dytell, 1996)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는 우울 위험 요인의 사이클을 만드는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는 대개 부정적인 사건 또는 부정적인 대인관계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우울까지로 이어지는 것이다(Feurer, Hammen, & Gibb, 2016; Hammen, 1991).

어머니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 슬픔, 분노, 과민한 행동을 보이며, 자주 잊게 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자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고 비관적인 생각,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느끼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Avery et al., 2008). 그 결과 가족과 함께 할 때 어머니 역할에 소홀해지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세대 간 우울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Burt et al., 2005; Feuer et al., 2016)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은 확실하다.

둘째,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걱정과 어머니의 우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Hay, Fingerman 그리고 Lefkowitz(2007)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인식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대한 인식 즉, 남편과의 관계와 우울은 산후우울증을 겪는 어머니, 영유아를 둔 어머니,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인식의 간접효과가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다른 변인보다 가장 큰 우울 관련 요인이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밝혀진 결과(Hassert & Kurpius, 2011; Schwartzberg & Dytell, 1996)와 일치한다.

성인의 미혼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 중일 수 있으나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우 성인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정(최선경, 2004)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원함과 동시에 자신의 노화 과정에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이것이 우울로 나타날 것이 예측된다. 물론 비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걱정과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걱정을 동등한 상황으로 놓고 비교할 순 없고, 어머니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에 대한 걱정을 어머니가 떨쳐버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생활



하는 성인 미혼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와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독립하지 않은 성인 미혼 자녀를 둔 경우 청소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약간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녀들도 사회에서 성인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자신을 개선해 나가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의 경우 자녀의 걱정 매개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년기에는 부부관계가 삶의 질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예측된 것이라고 한 이해자와 김윤정(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주연과 정혜정(2012)은 자녀 관계와 남편과의 관계가 모두 좋은 않은 경우, 가장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모두 좋아야 한다고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김은하, 남현숙, 김태훈(2013)은 40대-50대의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편의 우울이 아내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아내의 화병은 남편의 화병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부부관계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분석 시 특이했던 점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주제로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서도 다중병렬 매개효과를 통해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시에도 상관관계와 표준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자아분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수준은 강해지고, 자녀에 대한 친근한 관계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의 어머니 의식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남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대로 남편에 대한 인식이 자녀에 대한 걱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만 제시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도 검정해본 결과 기저모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은 조절효과는 없고, 부분 매개효과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모두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른 가족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 일상 스트레스 이면에 자녀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남편에 대한 인식 정도, 자녀의 걱정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변인 자체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이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다고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감에만 제한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조사연구 또는 질적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걱정과 배우자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어머니 그룹과 비교를 해보는 연구를 제안해 본다. 또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자녀의 걱정을 다루는 연구에서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조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7차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혼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인 미혼자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횡단적인 면만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계기로 구조 균형방정식을 적용하여 1차에서 7차에 이르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 변인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정도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하면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패널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은주·김혜경·조숙행·고승덕·조한익(2014). “중년여성의 폐경단계, 심리 및 건강행동 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36권, 6호, 25-54.
- 김고은(2011). “성인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어머니의 우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38권, 237-259.
- 김두길·유영달(2015).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남편과 아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11호, 177-191.
- 김은숙·정은정(2019). “중년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고통감내력과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4호, 638-650.
- 김은하·남현숙·김태훈(2013). “부인의 우울과 화병이 남편의 우울과 화병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 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4권, 10호, 4837-4846.
- 김진이(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25권, 4호, 25-56.
- 김현동·이상우(2017). “맞벌이 여성근로자의 자녀부양책임감과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이 직장가 가정의 긍정적 전이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4권, 4호, 83-106.
- 민은실(2017).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1권, 4호, 199-207.
- 박진아·이경숙·신의진(2009).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4호, 549-566.
- 서미정·최은실(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제20권, 5호, 575-594.
- 성준모(2010).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2호, 110-133.
- 송은미·이승연(2015). “중산층 중년 기혼여성의 건강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0권, 4호, 531-549.
- 위키백과(2019).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9A%B8>

- 에서 2019년 8월 1일 인출.
- 윤정순·이미현·이유미(2017). “자녀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학교 적응기대가 자녀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6권, 1호, 131-155.
- 이근용·이은정(201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성인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2권, 1호, 133-150.
- 이삼순·최원희(2007). “일 지역 중년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1권, 2호, 185-196.
- 이여봉(2019).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자녀부양의식 및 가족 관계망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교환이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학회지*, 제30권, 2호, 249-264.
- 이윤화·김동기·최은화(2016).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 응집력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3권, 1호, 159-180.
- 이인정·김미영(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5권, 3호, 127-149.
- 이주연·정혜정(2012). “초기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와 성인자녀관계에 따른 집단유형과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 *韓國老年學*, 제32권, 4호, 975-991.
- 이형권(2018). Mplus를 이용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신영사. 경기 : 파주.
- 이혜자·김윤정(2004).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4권, 4호, 197-214.
- 이흥자·김춘미·이도현(2016). “중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제16권, 1호, 1-10.
- 정유립·정성화·한삼성(2018). “기혼 여성의 남편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 결혼행복감을 매개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12호, 263-271.
- 정희정(201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8권, 1호, 97-120.
- 조남희·성춘희(2016).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7권, 6호, 89-97.
- 최선경(2004). “성인정신지체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양부담과 사회사업적 개입 방안에 관한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권, 2호, 207-220.
- 최옥주(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연구”. *유아*

교육연구, 제36권, 3호, 127-149.

APA(2018). DSM-5 간편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 서울 : 학지사.

Avery, M. W., Beardslee, W. R., Ayoub, C. C., & Watts, C. L.(2008). Parenting, depression, and hope: Reaching out to families facing adversity. Retrieved from <http://edlkc.ohs.acf.hhs.gov/hslc/tta-system/health/docs/parentingdepression.pdf>

Barrett, L. F.(2017). How emotions are made: The secret life of the brain. Boston, NY: Mariner Books.

Beardslee, W. K., Gladstone, T. R., & Diehl, A.(2014). The impact of depression on mothers and children. *Zero to Three*, 4-11.

Burt, K. B., Van Dulmen, M. H. M., Carlivati, J., Egeland, B., Sroufe, L. A., Forman, D. R., Appleyard, K., & Carlson, E. A.(2005). Mediating links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offspring psychopathology: The importance of independent dat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490-499.

Curran P. J., Stephen, G. W.,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Eshbaugh, E. M.(2010). Brief report: Does mastery buffer the impact of stress on depression on low-income mother? *Journal of Poverty*, 14, 237-244.

Feurer, C., Hammen, C. L., & Gibb, B. E.(2016). Chronic and episodic stress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5(3), 270-278.

Gjesfield, C. D., Greeno, C. G., Kim, K. H., & Anderson, C. M.(2010). Econo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ternal depression: Is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occurring? *Social Work Research*, 34(3), 135-143.

Hammen, C.(1991).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55-561.

Harley Therapy(2015). Stress vs depression - Do you know the difference? <https://www.harleytherapy.co.uk/counselling/stress-vs-depression.htm>

Hassert, S., & Kurpius, S. E. R.(2011). Latinas and postpartum

- depression: Role of partner relationship, additional children, and breastfeeding.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9, 90-100.
- Hay, E. L., Fingerman, K. L., & Lefkowitz, E. S.(2007). The experience of worry in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Personnel Relationships*, 14, 605-622.
- Hayes, A. F.(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zarus, R. S.(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Schwartzberg, N. S., & Dytell, R. S.(1996). Dual-earner family: The importance of work stress and family stres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 211-223.
- Turner, H. A.(2006). Stress,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mong never-married and divorced rural mothers. *Rural Sociology*, 71(3), 479-504.
- Zeedyk, S. M., & Blacher, J.(2017). Longitudinal correlates of maternal depression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or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2(5), 374-391.

Abstract

##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Worries and Their Perceptions of Husband in Relation to Mother's Stress and Depression of Unmarried Adult Children

Hyeyeong, 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reduce mother's depress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perception of children, husban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multi parallel mediation effect of children's worries and perception of husb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mother panel with adult unmarried children responding to the 7th data of the female family panel.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worry about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perception of husban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nxiety of unmarried adults, husband's perception,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depression, unmarried adult's children's worry, and husband's percep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stres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 results of the parallel multi-mediated effects test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worry of unmarried adult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husbands. This suggests that mothers suggest ways to deal with stress in their daily lives and require the support of family members. Lastly, we suggeste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regrets of the results and analysis of this study.

**Keywords :** mothers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stress, depression,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

---

\* Dept. of Special Education ph, Pusan National University